



# 주간 통일정세

2008-20

##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2. 대외정세 3. 대남정세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 I. 북한동향

### 1. 대내정세

#### 가. 김정일 동향

##### ● 김정일, 먹는문제 해결 절박(5/14, 조선중앙방송)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현시기 인민들의 식량문제,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절박하고 중요한 일은 없다”고 말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14일 보도
- 김 위원장은 함경북도의 길주농장을 ‘현지도’하는 자리에서 농업 증산과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같이 강조, 조선중앙방송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 농장에서 최근 연간 농산물 생산을 급격히 늘릴 수 있었던 기본요인은 ‘종자혁명’ 방침을 철저히 관철했기 때문이라며 ‘종자혁명’의 중요성을 지적

#### 나. 정치 관련

##### ● 北, 5·18맞아 ‘반정부 투쟁’ 촉구(5/18, 노동신문; 평양방송; 우리민족끼리)

- 노동신문은 18일, ‘광주항쟁에서 발취된 투쟁으로 자주통일과 민족번영을 이룩하자’ 제목의 개인필명의 논설을 통해 이명박 정부가 “6·15통일시대의 흐름에 배치되지 외세와 ‘관계우선’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비핵·개방·3000’을 거론하며 “동족대결소동을 악랄하게 벌이고 있다”면서 “현실은 남조선 사대매국세력의 반민족적, 반통일적 책동을 짓부셔 버리지 않는다면 나라의 평화와 민족의 안전도, 조국통일위업도 실현할 수 없다”고 주장
- 평양방송은 미국이 “광주대학살을 배후에서 조종”했다며 미국을 비난한 후 “남조선 인민들은..반미항전에 떨쳐나설 것이며..친미사대매국노들의 반민족적 행위를 단호히 짓부셔 버리고 말 것”이라고 강조
- ‘우리민족끼리’도 ‘민족사의 흐름에 역행하는 친미매국집단’ 제하 글에서 현 정부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전면 부정하고 북남관계를 대결시대로 몰아가려고 책동하면서..애국적 청년학생들을 가혹하게 탄압하고 있다”며 “미제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고 민족사의 흐름에 역행하는 친미매국집단의 반민족적 책동을 철저히 짓부셔야 한다고 강조

##### ● 北, 언론인 6·15-10·4선언 전파자 역할 수행(5/17, 통일신보)

- 통일신보는 ‘6·15시대와 언론의 역할’ 제목의 글에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대한 태도는 곧 민족자주와 사대굴종, 통일과 분열, 평화와 전쟁을 가르는 시금석”이라고 지적하고 “북과 남의 언론인



들은 시대의 걸림돌이 될 것이 아니라 겨레의 자주통일운동을 앞장에서 선도해 나가는 시대의 기수, 전진하는 대오의 나팔수”가 돼야 한다고 강조

- 또 신문은 “(남측의) 보수세력이 집권하자마자 동족 앞에 내든 ‘비핵·개방·3000’과 ‘동맹우선’, ‘관계복원’이라는 것은 오늘의 시대에 대한 공공연한 도전이며 외세와 결탁해 동족을 해치려는 민족대결론”이라고 비난한 후 “북남 언론인들은..반민족적, 반통일적 대결책동과 사대공조, 전쟁공조와 같은 반역행위를 단호히 배격하고 그 부당성을 폭로하는 다양한 언론활동을 적극 벌여나가야 한다”고 촉구

#### ● 北, 10·4선언 이행하면 북남관계 전환(5/13, 평양방송)

- 지난해의 남북정상선언을 “철저히 이행”하면 “북남관계를 우리 민족끼리의 관계로 확고히 전환시켜 자주통일과 평화변영의 새 민족사를 창조할 수 있다”고 평양방송이 13일 주장
- 방송은 ‘10·4선언은 조국통일과 평화변영을 위한 애국투쟁의 기치’라는 제목의 보도에서 “10·4선언은 자주통일, 평화변영의 새 시대를 알리는 장엄한 선언이며, 북과 남이 6·15 공동선언의 정신을 재확인하고 그에 기초해 평화와 협력, 통일을 다그쳐 나갈 것을 약속한 무게 있는 선언”이라면서 이같이 강조

#### ● 北, 南통일교재, 우리를 심히 자극(5/13,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3일 통일부 산하 통일교육원이 최근 통일교육 교재로 발간한 ‘북한이해 2008’에 대해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과 10·4선언을 깎아내리고 교재 전반을 우리 공화국(북)을 심히 자극하는 내용들로 일관했다”고 비난, ‘반공화국 대결의식을 심어주려는 악랄한 책동’이라는 제목의 이날 노동신문 글은 6일 ‘북한이해 2008’ 발간 후 나온 북한의 첫 반응

#### 다. 경제 관련

#### ● 北전람회 참가 외국기업들, 北진출에 관심(5/16, 조선신보)

- 15일 막을 내린 제11차 평양봄철국제상품전람회에 참가했던 외국기업들이 대북진출에 관심을 나타냈다고 조선신보가 보도, 가장 눈길을 끄는 기업은 중국 최대 백색가전 업체인 하이얼로 이문도 해외추진본부 구역경리는 조선신보와 인터뷰에서 “부단한 품질향상을 신조로 삼고 있는 하이얼은 조선(북)과의 기술교류와 무역거래를 통해 중조관계 발전에 적극적인 기여를 할 것”이라고 언급
- 러시아의 클리오 그룹도 북한 진출에 적극성을 보였는데, 전람회 참가가 처음인 클리오 그룹은 러시아의 체신, 보건, 축산 등의 분야에서 높은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으며, 이번 전람회에 외과수술 봉합용 실제품, 가축용 사료 촉매제 등을 출품했다고 조선신보는 보도



- **北, 2007년 EU에 과일나무 지원 요청(5/16,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이 2007년 홍수 피해를 입은 뒤 유럽연합(EU)에 과실수 지원을 요청했다고 체코 민간 연구기관인 과수종자연구센터의 바브라 연구원이 자유아시아방송(RFA)보도
  - 바브라 연구원은 과수종자연구센터가 2008년 3월 17만달러 상당의 사과나무 4만4천500그루를 북한에 전달했으며, 4월에는 센터의 전문가 1명이 일주일간 방북, 2007년 홍수 피해가 심각했던 지역에서 사과나무 심기와 재배 기술을 전수했다고 언급
  
- **北, 나선지역 투자 南기업에 면세 입장(5/15, 연합)**
  - 나선·선봉 지역에 남측 기업이 적극 진출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수산물 증개무역 업체인 (주) 매리의 정한기 중국법인 대표가 15일 전언, 그는 “나선 지역에 투자한 외국 기업 150곳의 대부분이 중국 업체”라고 지적하고 “남측 기업들은 통일부의 협력사업 승인이 없으면 직접 투자가 불가능해 러시아나 중국에 법인을 두고 합작 회사를 세우는 방식으로 간접 진출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힘.
  - 그는 “2000년부터 북측 ‘나선강성무역회사’와 통조림 공장 설립을 협의하고 있는데, 북측은 남한 기업이 현지에 진출하는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남측 기업이 진출할 경우 면세 조치 등 투자 혜택을 적용해주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안다”고 언급
  
- **경제강국 건설 선전선동 강화하자(5/15,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5일 “경제강국 건설은 오늘 우리 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투쟁과업”이라며 ‘경제강국’ 건설을 위한 선전선동 사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 신문은 ‘혁명적인 선동공세를 벌여 온 나라에 총진격의 북소리가 높이 울리게 하자’ 제목의 사설에서 “오늘 우리 앞에는 선군혁명의 위대한 승리와 성과에 토대해 공화국 창건 60돌(9.9)을 맞는 올해를 조국 청사에 아로새겨질 역사적 전환의 해로 빛내며 가까운 몇해 안에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 놓아야 할 무겁고도 영예로운 과업이 나르고 있다”며 이같이 주문
  - 신문은 노동당 조직에 대해 “선동사업을 당위원회적인 사업으로 틀어쥐고 선전선동 역량을 총동원해 진공적으로 벌여 나가야 한다”고 주문
  
- **北, 첫 소화기 생산공장 합작회사 모집(5/15, 연합)**
  - 북한이 최초의 소화기 생산공장을 설립하면서 해외기업과 합작을 추진 중, 15일 친북 국제조직인 조선우호협회(KFA)는 인터넷홈페이지(<http://www.korea-dpr.com>)에 게재한 ‘Joint venture(합작투자)’라는 공모를 통해 “북한 정부가 믿을만한 소화기 제조업체를 찾고 있다”면서 “미국과 남한, 일본을 제외한 어떤 국가의 업체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힘.



- 이 공모는 합작의 목적이 “북한의 첫 소화기 공장을 설립하고 전역의 소화기를 보수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며 “곧 국가 차원의 강제규정이 시행되면 모든 빌딩에서 북한산 소화기를 사용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소개
  - \* 북한 대외문화연락위원회 비준을 통해 2000년 11월 스페인에서 설립된 이 협회는 북한의 입장을 선전하는 가장 큰 북한밖 ‘연락조직’으로 세계 각국에 분포

● **北농업성, 식량, 무조건 자체 해결 강조(5/13, 조선신보)**

- 세계적 곡물가 상승으로 일부 국가의 식량 수출제한 조치가 잇따르는 가운데 북한의 각 지역 농촌에서는 “대응책의 기본은 국내 증산”이라는 인식 속에 영농일정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조선신보가 13일 보도
- 농업성 관계자도 “세계적으로 쌀 가격이 상승하고 여러 나라에서 쌀 수출을 제한하는 것과 관련해 식량문제를 무조건 자체로 해결해야 할 긴급한 사정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하는 등 위기의식을 표현

라. 군사 관련

● **노동신문, 南무기구매 지위 상승으로 정세 긴장(5/13,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3일 한국의 미국산 무기 구매지위 상승으로 한반도 정세가 극도로 긴장되고 있다면서 “작용에는 반작용이 있기 마련”이라고 주장
- 노동당 기관지인 이 신문은 ‘선제타격을 노린 위협천만한 군사적 움직임’ 제목의 논평에서 “미 하원 외교위원회에서는 남조선의 미국산 무기구매 지위를 나토(NATO) 수준으로 끌어올릴 데 대한 법안이 통과됐다”며 “미국은 남조선에 대한 무기제공의 신속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무기품목을 대폭 확대할 수 있게 됐다”고 언급

마. 사회·문화 관련

● **몸에 좋은 콩메주 건강가루(5/17, 조선신보)**

- 장철구평양상업대학이 메주균과 콩, 강냉이, 현미, 울무를 원료로 한 ‘콩메주 건강가루’를 만들었다고 조선신보가 보도, 이 가루는 더운 물에 타서 마실 수 있으며 “혈압과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항산화 기능, 항혈압상승 기능, 면역부활, 항암 기능, 인슐린 작용을 조절하는 기능 등을 높인다고 덧붙임.

● **北문학지, 이덕무, 18C 진보적 실학자라고 평(2008년 3호, 청년문학)**

- 문학잡지 ‘청년문학’ 2008년 제3호는 조선 후기 실학자인 이덕무(李德懋, 1741~1793)의 출생 배경과 업적 등을 자세히 소개하면서 “진보적인 시 창작으로 우리나라 18세기 애국적 시문단을 더욱 풍부히



하는 데 기여한 선진적인 실학자, 시인”이라고 평가, “남의 나라가 아닌 내 나라의 것을 시에 담아 노래하고 외적들의 침입과 간섭으로부터 내 나라를 지켜내야 한다는 사상을 교훈적으로 노래하고 있는 것은 아주 진보적인 것이다.”라고 주장

● **성인들 제친 北 소녀力士 림정심(5/17, 조선중앙통신)**

- 북한에서 성인들이 출전한 역도경기에서 3개의 금메달을 딴 소녀 역사가 등장, 조선중앙통신은 17일 “청춘거리 역기(역도)경기관 청소년체육학교에 다니는 올해 15살의 림정심이 얼마 전 만경대상 체육경기대회 여자역기 48kg급 경기에서 3개의 금메달을 땀다”고 보도

● **北, 7월에 환경관련 토론회 잇따라 개최(5/17, 조선중앙통신)**

- 오는 7월 평양에서 국토환경부문과 자연지리학부문 학술토론회를 잇따라 열 예정이라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통신에 따르면 7월 29일 열릴 ‘전국 국토환경부문 학술토론회’에서는 국토계획과 관리, 대기·물·토양·생태 등 환경보호사업과 관련한 과학연구 성과·경험이 발표될 예정  
- 7월 23일 열릴 ‘전국 자연지리학부문 학술토론회’에서는 ‘큰물(홍수) 피해 방지’관련 논문을 비롯해 ‘자연환경과 자연부원(자원)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일반 자연지리 및 지형학적 연구’, ‘토양 및 생물지리학 연구’, ‘경관생태 및 토지이용계획 분야 연구’ 결과가 발표될 예정

● **北위생방역소, 전염병 예방사업 강화(5/17, 조선중앙방송)**

- 중앙위생방역소는 봄철 전염병을 막기 위한 예방 집중과 검병·검진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고 북한의 조선중앙방송이 보도

● **北식량난 속 동요방지 사상교양(126호, 좋은벗들 소식지; 5/15, 노동신문)**

- 대북 인권단체인 ‘좋은벗들’은 15일 북한 소식지(126호)를 통해 “식량난이 심각한 와중에 사상교양은 더 강화되고 있는 양상”이라며 “주민들의 표현대로라면, 전국 어디서든 눈만 뜨면 눈 감을 때까지 사상교양으로 정신이 없다”고 전언  
- 노동신문은 15일 경제강국 건설을 위해 선전선동 사업을 강화할 것을 당 조직에 주문하는 등 북한 당국은 최근 주민들의 동요를 막기 위한 사상교육을 강화  
- 소식지는 한편 “지난 5월초 함경남도 함흥시 동흥산 구역에서 집 식구들이 집단 설사병에 걸려 연이어 죽는 일이 발생했다”면서, 이들은 “너무 오랫동안 먹지 못한 가운데 풀죽을 잘 못 먹은 데다 오래된 물로 배를 채운 게 큰 탈이 났다”고 전하는 등 생활고로 인한 ‘일가족 사망’과 자살이 속출하고 있다고 주장



- **北, 정권수립 60주년 새 집단체조 준비(5/14,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은 정권수립 60주년(9.9)을 기념해 새로운 집단체조 ‘조국이여 번영하라’를 준비 중이며 오는 8월부터 기존의 집단체조 ‘아리랑’과 함께 선보일 계획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이 14일 니컬러스 보너고 려관광 대표의 말을 인용해 보도
- **北병원, 안과질환 즐기세포 이식치료 연구(5/13, 조선신보)**
  - 김만유병원이 망막색소변성증과 시신경위축증 등 안과질환에 즐기세포 이식을 통한 치료법을 연구하고 있고 일부 효과도 본 것으로 전해짐.

## 2. 대외정세

### 가. 6자 회담관련

- **한·미·일 6자수석 18~19일 워싱턴서 회동(5/18, 연합)**
  - 북핵 6자회담 우리측 수석대표인 김 숙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한·미·일 3자 수석대표회동을 위해 18일 오전 미국으로 출국, 김 본부장은 워싱턴에서 18~19일(현지시간) 미·일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 사이키 아키다카(齊木昭隆) 아주국장과 각각 양자회담 및 3자회담을 갖고 6자회담 재개 일정을 비롯한 북핵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
  - 이번 회동에서는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고 있는 핵신고 문제에 대한 평가와 이에 대한 검증 및 모니터링 방법, 6자회담 재개 일정 등이 두루 논의될 것으로 예상
    - \* 한·미·일 3자 수석대표 회동은 2006년 10월 북한 핵실험 직후인 2006년 11월 하노이 회동 이후 1년 6개월 만임.
- **조선신보, 北, 더 대범한 조치 용의있을 것(5/14,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14일 북핵 폐기 “2단계 조치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가운데 조선(북한)은 동시행동 원칙이 관철된다면 세계에 보란듯이 보다 대범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용의도 있는 듯 하다”고 주장
  - 신문은 ‘조선의 핵계획관련 문서 제공, 전략적 결단에 안받침된 조치’ 제목의 기사에서 북한이 성 김 미 국무부 한국과장에게 영변 핵 시설 가동기록을 넘겨주고 김 과장이 이를 휴대한 채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넘어선 일의 의미를 강조하면서 이같이 주장, 신문은 “조선의 핵활동 기록을 손에 쥔 미국관리들의 귀환”은 “6자합의가 본래의 궤도에 따라 이행되고 있으며, 조선이 합의 이행의 완결을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2가지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
  - 이어 6자회담이 비핵화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얼마 남지 않



은 부시 대통령의 임기 내에 모든 문제가 풀리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적대관계 청산에 대한 미국의 의지가 구체적인 행동의 첫 걸음을 내딛는다면 중요한 기점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신문은 강조, “조선도 비핵화의 목표를 향한 노정도(로드맵)를 마련하고 그 중착점으로 나가는 외교적 환경, 협상동력을 창출하는 데 별다른 의견(이견)은 없을 것”이기때문이라는 것

#### 나. 북·미 관계

##### ● 北, 美 식량원조에 이례적 보도(5/17,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조선중앙TV)

- 북한은 17일 미 국무부의 대북 식량지원 계획 발표 후 12시간만에 조선중앙통신의 첫 보도를 시작으로 평양방송, 조선중앙방송과 중앙TV방송을 통해 이 사실을 신속히 보도
- 북한은 5월 8일에도 방북한 미국 정부의 협상 대표단과 북한 당국간 식량지원 “협상은 진지하게 잘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보도하고, 9일 노동신문도 이를 4면에 실는 등 미국의 식량지원 사실을 대내외에 공개
- 조선중앙통신과 똑같은 내용으로 반복된 북한 매체들의 보도는 또 미국의 식량 제공이 “부족되는 식량 해결에 일정하게 도움”이 되고 북한과 미국 “두 나라 인민들 사이의 이해와 신뢰 증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 북한 매체들은 “(북한 당국은) 식량제공 실현에서 나서는 실무적 조건들을 보장해줄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힘으로써 미 정부의 요구 조건을 수용하고 이행할 것임을 천명

#### 다. 북·중 관계

##### ● 北, 中대지진 신속히 보도(5/18, 조선중앙TV, 5/17, 노동신문; 중앙방송; 평양방송)

- 북한 매체들은 12일 중국 쓰촨(四川)성 원촨(汶川)현에서 발생한 리히터 7.8의 대지진 피해소식을 발생 하루 만에 피해상황을 첫 보도한 이후 발생 원인과 중국 측의 대대적인 복구작업 등을 연일 주민들에게 보도
-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지진발생 하루 뒤인 13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에게 위로전문을 보내 “귀국 인민이 피해 후과를 하루 빨리 가시게 되기를 바란다”고 기원했고, 대외문화연락위원회와 조·중 친선협회, 청년동맹 등 북한의 여러 기관·단체들도 중국의 관련 단체들에 별도의 전문을 보내 위로의 입장을 전달
- 노동신문은 17일 ‘지진 피해를 가시기 위한 투쟁’이라는 제목의 글을 싣고 쓰촨성 대지진 발생과 피해규모, 중국 당국의 대대적인 구조활동 소식을 전했으며,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도 중국 국무원 지진재해구제지휘부 자료를 인용해 “15일 현재 사망자 수가 1만9천509





명으로 늘어났다”며 중국 당·정·군의 지진피해 복구 조치를 상세히 소개

● **중국 대지진에 각계 위로 전문 발송(5/17, 조선중앙방송)**

- 북한의 대외문화연락위원회와 조-중친선협회 중앙위원회,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를 비롯한 여러 기관, 사회단체들이 중국의 지진 피해와 관련, 중국의 해당 단위들에 전문을 보내어 피해지역 인민들에게 깊은 위문을 표시했다고 보도

● **北, 中에 지진피해 복구비 10만달러 지원(5/17,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극심한 식량난을 겪고 있음에도 중국 쓰촨(四川)성의 지진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해 10만 달러를 중국에 제공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이에 앞서 5월 13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에게 “강한 지진이 발생해 많은 인명 피해와 물질적 손실을 입었다는 불행한 소식에 접하여 중국 공산당과 중국 정부와 피해지역 인민들에게 깊은 동정과 위문을 보낸다”는 내용의 위로 전문을 보냈으며, 후 주석은 이튿날 답전을 보내 “당신께서 위문전문을 보내준 데 대해 충심으로 되는 사의를 표한다”고 말했다고 북한 매체들은 보도

● **주북 中대사, 성화봉송 협조 감사연회(5/15, 조선중앙방송)**

- 류샤오밍(劉曉明) 북한주재 중국대사가 14일 대사관에서 베이징 올림픽 성화봉송행사에 협조해준 북한 당국에 감사연회를 개최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15일 보도
- 이 자리에는 북측에서 김영일 내각 총리, 박학선 체육지도위원장, 김영일 외무성 부상, 박병중 평양시 인민위원회 1부위원장 등이 참석, 류 대사는 연회에서 “평양에서 진행된 제29차 올림픽경기대회 봉화(성화) 이어달리기는 가장 훌륭한 행사였다”며 “봉화이어달리기를 성과적으로 보장해 준 조선 당과 정부에 충심으로 되는 사의를 표한다”고 언급
- 류 대사는 앞서 지난 5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예방해 성화봉송행사 협조에 사의를 표시하고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의 구두친서를 전달하기도 했음.

라. 북·일 관계

● **北, 日에 과거범죄 사죄·배상 요구(5/18,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중국화폐를 위조해 경제적 혼란을 초래하는 등 “아시아 인민들에게 헤아릴 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들씌웠다”며 과거범죄에 대한 사죄 및 배상을 촉구
- 신문은 “일본은 지난 세기 일제가 저지른 전대미문의 죄행에 대한



배상을 모면해 보려고 갖은 오그랑수(속임수)를 다 쓰고 있다”며 “조선 인민과 아시아 인민의 피땀으로 살찌 온 전범국인 일본은 과 거죄행을 솔직히 털어놓고 그를 인정하며 철저히 배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北, 日 우주기본법 입법 비난(5/14,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4일 일본 중의원에서 통과된 ‘우주기본법안’은 ‘우주군사화’와 북한을 침략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 신문은 “일본 반동들의 책동은 조선반도와 그 주변지역을 포함한 전략적 지대들을 저들의 우주감시망에 넣고 임의의 시각에 선제타격을 가하기 위한 것”이라며 “우주군사화, 해외팽창 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위험한 기도의 발로”라고 주장

마. 기타외교 관계

● **유럽순방 외무성 대표단 귀환(5/17, 조선중앙방송)**

- 궁석웅 부상을 단장으로 한 북한 외무성 대표단이 체코, 폴란드 등을 순방하고 17일 귀환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보도

● **北최태복, 포르투갈 공산당 노동당 중앙위원회 면담(5/16, 조선중앙통신)**

- 최태복 비서는 16일 만수대의사당에서 포르투갈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비서인 알바노 누네스를 단장으로 한 포르투갈 공산당대표단을 만나 대화를 나눔.

● **북한적십자회 중앙위원회 활동(5/16, 조선중앙방송)**

- 북한적십자회 중앙위원회가 북한에서 활동하고 있는 적십자 및 적반월회 국제연맹 대표단, 적십자 국제위원회 대표단 등과 공동으로 15일 평양시 대동강 외교단회관에서 적십자 활동 소개 모임을 가졌다고 조선중앙방송이 16일 보도

● **평양서 北-이란 친선행사 개최**

- 북한과 이란 간 ‘친선주간’을 맞아 13일 평양 천리마문화회관에서 기념집회와 영화감상회가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3. 대남정세**

가. 대남보도

● **남북 여성대표자 회의 금강산에서 개최(5/16, 조선중앙통신)**

- 남북 여성대표자 회의가 15~16일 금강산에서 ‘6·15공동선언과 10·4 선언 실천을 위한 남북 여성들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열렸으며, 남북이 공동보도문을 발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6일 금강산발로 보도



## 나. 남북교류

### ● 개성공단 69개업체중 10여개 수익 기록(5·6월호, 민족화해; 5/18, 연합)

- 개성공단에 입주한 69개 기업 중 10여개 기업이 수익을 내고 있으며 20여개 기업은 손익분기점 근처에 도달했다고 신연상 개성공단관리위원장이 잡지에 기고
- 민족화해' 5~6월호에서 손익분기점 미도달 기업이 30여개지만 “신규가동, 신규투자, 감가상각비 처리, 국내 본사와 임가공료 산정방식의 차이, 국내 수주문제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수익평가를 해야 하기 때문에 미도달기업이라 해서 적자기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언급
- 그는 개성공단 운영 과정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애로사항으로 ‘콩나물 시루’를 방불하는 북측 근로자들의 출퇴근 교통편과 기숙사 문제를 꼽음. 4월 17일 기준, 개성공단에 근무하는 북측 근로자 2만6천 272명 가운데 1천여명은 자전거로, 나머지는 버스로 통근하고 있는데, 85대의 버스가 투입되고 있으나 대당 1일 운송능력이 250여명 정도밖에 안돼 통근버스는 마치 콩나물 시루같다는 것, 공단 1단계 건설이 끝나는 2010년 말에는 450개 기업에 8만~10만명의 근로자가 일하게 되는 만큼 별도의 통근대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신 위원장은 거듭 지적
- 그는 개성시에서 공단에 공급한 인력은 4만5천~5만명 수준이어서 외부에서 4만~5만여명의 인력이 더 충원돼야 하므로 이들을 위한 숙소가 필요하다며 “남한의 시장경제 논리로는 ‘북측이 알아서 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선투자를 통한 우리의 득실이 무엇일지 잘 계산해 봐야 한다”고 말해 남측의 적극적인 해법 모색이 필요함을 지적

### ● 정부, 북에 옥수수 5만t 지원 검토(5/15, 연합)

- 정부는 수해를 겪은 북한 주민에 대한 긴급 구호 차원에서 지난해 지원키로 했다가 여러 사정으로 유보했던 옥수수 5만t을 제공하는 방안을 최근 다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 정부, 민간 대북지원에 102억원 지원 의결(5/15, 연합)

- 정부는 15일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제203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 회의를 열어 올해 민간단체의 대북 지원사업에 남북협력기금(이하 기금) 102억원을 지원키로 의결, 37개 민간 단체들이 추진 중인 대북지원 사업 40건에 대한 기금 지원 건을 심의
- \* 이번에 민간 대북지원 사업에 지원되는 기금액은 작년 115억4천만 원에 비해 약 12% 줄어든 규모



● **남북 6·15 공동행사 금강산 개최(5/14, 연합)**

-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는 6·15 공동선언 채택 8주년 기념 행사를 금강산에서 열자는 북측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 남측위는 올해 행사에 금강산의 숙박 시설 등을 고려할 때 남측에서 모두 300여명이 참석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 이 관계자는 “정부 대표단 참가 여부는 남북 당국끼리 논의할 사안”이나 “내부적으로는 남측 당국 대표자를 초청해 축사를 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

● **경남 법씨에 北 놀라…종자교류 물꼬(5/14, 연합)**

- “경남에서 평양으로 가져간 ‘삼덕벼’ 종자(100kg)를 북측 사람들이 파종해본 결과 놀랄 정도로 수량이 많으면서 균일하게 생산돼 한 톨도 식량으로 쓰지 않고 전량 종자로 사용한다고 알려졌다”고 경남도가 발표

● **이산가족면회소 완공임박…상봉행사는 ‘감감’(5/13, 연합)**

- 이산가족 상봉 확대를 대비해 ‘상시상봉’의 인프라를 만든다는 차원에서 남북이 건설에 합의한 면회소는 지하 1층, 지상 12층에 206개 객실을 갖춘 현대식 건물로, 총 사업비가 약 600억원에 달함. 최대 1천명을 수용, 2002년 9월 제4차 적십자회담에서 합의된 이후 북핵 상황 악화로 한때 공사가 중단되는 등 곡절을 겪은 끝에 현재 94~9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상황
- 정부는 완공 후 1개월여 동안 각종 집기를 설치한 뒤 8월 중순 경 정상 개소한다는 계획, 하지만 남북 당국간 대화가 단절된 상황에서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한 논의도 진전이 없는 터라 당국자들은 건물이 완공되고도 제 기능을 못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걱정

● **경기도, 북한 개성시 양묘장 준공(5/13, 연합)**

- 김문수 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경기도 대표단이 13일 북한 개성시 개풍을 방문, 북한측과 함께 묘목생산을 위한 양묘장(養苗場) 준공식을 개최, 개풍양묘장은 북한의 산림자원을 복원하기 위해 경기도가 지난해부터 개성시 개풍동 일대 9ha에 조성한 것으로 1천125㎡ 규모의 온실 3개동과 관리동, 창고, 차고, 태양광발전시설 등을 갖추고 있음.
- 고위급 공무원인 김문수 지사가 북한 땅을 밟음에 따라 일각에서는 북한의 태도에 변화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 일단 정부 당국은 북한이 MDL통과를 허용하지 않는 남측 당국자의 범위를 중앙 정부부처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 II. 동북아정세

### 1. 대북한 관련

####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 한·미·일 6자수석 18~19일 워싱턴서 회동(5/18)

- 김숙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워싱턴에서 18~19일(현지시간) 미·일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 사이키 아키다카(齊木昭隆) 아주국장과 각각 양자회동 및 3자회동을 갖고 6자회담 재개 일정을 비롯한 북핵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
- 김숙 본부장은 이날 출국에 앞서 “6자 틀내에서 한·미·일 3자 협의를 갖게 되는 것”이라며 “이번 협의에서는 차기 6자회담에서 논의될 현안인 신고내용 검증은 물론 핵폐기 단계 이행을 위한 이행 계획 등을 두루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차기 6자회담 재개 일정 등 구체적인 것은 현지에서 논의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 ● “6자회담, G7모델로 제도화해야” <美전문가>(5/16)

- 북핵 6자회담이 비핵화 검증 등 3단계에서 예상되는 더욱 어려운 과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키 위해선 서방선진 7개국 회의(G7)나 G8(G7+러시아)을 모델로 낮은 수준의 제도화를 이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음.
- 미국의 민간 연구기관인 외교정책분석연구소(IFPA)가 최근 펴낸 ‘동북아 미래 안정을 위한 다자 대응’이라는 책은 6자회담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현존하는 가장 유용한 수단임을 강조하면서, 앞으로 6자회담에 요구되는 역할을 감안해 “집단적 다자 대응력을 제고하되 제도·관료화는 최소화”할 수 있는 다자기구 방식으로 G7/G8 방식을 제안
- 제임스 쇼프 IFPA 아태연구소 부소장 등 저자들은 현 6자회담 참가국들이 6자회담을 예산과 상근인력이 많이 드는 방대한 기구로 만들 의사가 없는 현실을 감안해 중국 베이징에 중국 외교부에서 독립된 장소에 상주 사무국을 설치해 베이징 주재 6자회담 참가국 외교관을 파견시켜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

##### ● 韓美日 18~19일 워싱턴서 북핵 연쇄회담(5/15)

- 톰 케이시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북핵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차관보가 18~19일 한국과 일본측 수석대표를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 힐 차관보와 6자회담 한국측 수석대표인 김 숙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일본 측 수석대표인 사이키 아키다카(齊木昭隆) 아주국장은 18



일 연쇄 양자회담에 이어 19일 3자회담을 갖고 북핵 신고와 검증 등 당면 현안을 두루 논의할 예정

● 외교부 “北 수일내 신고서 제출시 6월초 6자회담”(5/14)

- 외교통상부 문태영 대변인은 14일 북핵 6자회담 상황과 관련, “북한이 수일 내에 곧 중국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중국이 이를 각국에 회람하는 과정을 산술적으로 계산해보면 6자회담 재개 시기는 6월 초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 “北 시리아지원 플루토늄 제조보다 더 나빠” <갈루치>(5/14)

- 로버트 갈루치 전 미 국무부 차관보는 카네기국제평화재단(CEIP)에서 ‘북한 핵프로그램에 대한 정책대안’이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북한이 영변 원자로 플루토늄 생산과 관련된 자료를 넘긴 이후 다음 단계는 북한의 시리아 핵지원과 우라늄 농축시설 문제 해결이라고 말했다.
- 그는 최근 북한으로부터 입수한 플루토늄 자료는 실질적인 불능화를 모색하기 위한 정말 좋은 자료라고 평가하고 미국도 이에 상응하는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와 적성교역국 적용해제 문제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성김과장 “힐 내주초 6자회담 대표들과 협의 착수”(5/14)

- 북핵신고 검증과 관련, 성김과장은 “이 자료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모든 북핵 시설에 대한 현장실사, 샘플링, 핵프로그램 관계자들과의 면담 등이 필요할 것”이라면서도 “이번 자료들은 북핵 신고 검증에 대한 중요한 첫 걸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 이번에 북한으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는 영변의 5MW 원자로 및 핵연료재처리 공장에 대한 일일 운영기록으로 ‘완전한 자료’로 보인다고 성 김 과장은 밝혔다.
- 성 김과장은 영변 원자로의 폐연료봉 제거작업과 관련, “북한은 하루에 30개씩 폐연료봉을 제거하고 있어 폐연료봉 제거작업을 완전히 마치기까지 2~3개월이 더 걸릴 것”이라면서 “북한은 폐연료봉 제거속도를 대북에너지 지원시기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으며 폐연료봉 제거속도를 약간 늦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 성김과장 “6자회담 내주초 열릴 듯”(5/14)

- 로이터 통신은 성 김 과장이 이날 국무부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가 빠르면 내주초 한국, 북한, 중국, 러시아, 일본 대표들과 대화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 북한 방문을 마치고 전날 귀국한 성 김 과장은 “북한은 (핵프로그램에 대한) 검증필요성을 인정했으며, 검증활동에 전적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 **한·중 6자 수석대표, 북핵문제 논의(5/13)**

- 북핵 6자회담 우리측 수석대표인 김 숙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13일 중국 베이징을 방문, 중국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부부장과 회동을 갖고 북핵 6자회담 진전 방안 등을 논의
-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미국과 북한 간의 핵프로그램 신고 문제가 진전을 이룬 것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각 당사국이 공동노력해 2단계를 마무리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가 조속히 달성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히고, 이 과정에서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했음.

나. 미·북 관계

● **“미얀마와 같은 ㅍ 또 다른 위기...북한 식량난”<뉴스위크>(5/18)**

- 미국의 시사전문지 뉴스위크 인터넷판은 이날 발간한 최신회(26일자)에서 “(북한에서) 굶주림으로 인한 사망은 거의 피할 수 없으며 그 규모 면에서 미얀마(의 사이클론 피해)에 필적할 수도 있다”고 경고.
- 잡지는 북한이 수출을 통해 얻은 소득으로 곡물을 수입할 수 있도록 북한경제를 소생시키는 게 장기적인 해결책이라면서도 하지만 이런 해법은 북한이 핵 문제에 진전을 이뤄야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단기적으로는 한국과 일본, 중국의 적극적 활동이 없으면 북한에선 굶주림으로 인해 무고한 주민의 희생이 재연될 것이라고 우려

● **“北, 한국어 구사 식량분배 감시요원 허용”(5/17)**

- 북한은 미국 정부와의 식량지원 협의과정에서 한국어 구사능력을 갖춘 식량분배 감시요원 배치를 허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17일 보도
- 북한은 또 식량분배 감시요원 규모를 종전 50명에서 65명으로 늘리고, 임의 모니터링도 가능하도록 미국측과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니터 요원들은 식량저장 창고 및 기타 시설에 대한 접근도 허용됨. 그러나 ‘한국어 구사능력을 갖춘 요원’의 대상에 ‘한국인(ethnic Korean)’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 **“탈북자 일가족 5명 추가 美 입국”<VOA>(5/17)**

- 중국에서 체류하던 탈북자 일가족 5명이 16일(현지시각) 미국에 입국함으로써 북한인권법 제정 후 미국 망명을 허용받은 탈북자가 53명으로 늘어났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17일 보도
- 새로 미국에 입국한 탈북자들은 함북 무산 출신이며, 지난해 7월 탈북해 선교단체와 미 국무부의 도움으로 같은달 중국 베이징의 유엔 고등판무관실에 들어가 망명절차를 밟아 탈북 10개월 만에 시카고에 도착했다고 선교단체 관계자는 설명



● **오바마 “北 등 불량국가 지도자 만날 것” 재확인(5/17)**

- 오바마 의원은 당내 대선후보 경선의 마지막 무대인 사우스다코타(6월3일 예비선거)를 방문,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나는 우리의 동맹국과 친구뿐만 아니라 시리아, 이란, 북한, 베네수엘라 같은 우리의 적들과도 강력한 외교를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나는 (불량국가의) 지도자들을 만날 것이며, 준비는 하되 조건은 없이 만날 것”이라고 강조

● **美 대북 식량지원 재개...50만t 제공(5/17)**

- 미 국제개발처(USAID)는 성명을 통해 북한이 심각한 식량부족에 직면했음을 미국측에 설명했다며, “미국과 북한은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 재개 프로그램의 기준들에 대한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미국은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약 40만t, 미국 비정부단체들을 통해 10만t 등 총 50만t의 식량들 2008년 6월부터 12개월간 북한에 제공할 계획”이라고 성명은 제시
- 미국과 북한은 “WFP와 NGO 직원들이 기근 주민들에게 폭넓은 지리적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지원 식량의 배포를 효과적으로 모니터할 수 있는 틀에 합의했다”고 성명은 소개하고, 이는 식량이 실제로 필요한 북한 주민들에게 가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성명은 지적.

● **“北 식량난 90년대 중반과 같은 ‘도시형 기근’” <美전문가>(5/16)**

- 최근 북한에서 진행되고 있는 식량난은 지난 90년대 중반에 발생했던 ‘도시형 기근’ 양상과 비슷하며 정치적 폭발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앤드루 나초스 전 미국 국제개발처(USAID) 국장은 이날 미 하원 재무위원회의 세계식량위기 관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 이같이 증언
- 나초스 전 국장은 “북한에선 지난 1990년대 중반 발생했던 기근으로 250만명이 굶어죽었다”면서 “당시 기근은 아주 드문 도시형 기근이었다”고 밝히며, 기근사태가 발생하면 “도시지역에서는 주민들이 시위를 벌이고 폭동을 일으켜 가끔 정치적 폭발에 이르기도 한다”면서 지난 1970년대초 아프리카 사하라남부의 사헬지역에서 대기근이 발생했을 당시 기근문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13개 국가 가운데 11개 국가에서 쿠데타가 발생했다며 북한 식량난의 심각성을 강조

● **“北, 월마트 진출 강력 희망” <美전문가>(5/16)**

- 최근 북한을 방문했던 빌 리처드슨 뉴멕시코 주지사의 고문인 토니 남궁 박사는 16일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과 인터뷰에서 “북한은 테러지원국 해제에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고, 적성국교역법 적용 해제에 대해서도 많은 희망을 나타냈다”며 “월마트가 북한에도 진출했으면 하는 바람까지 거침없이 내보였다”고 전했다.





- 남궁 박사는 “북한은 적성국 교역법 적용이 면제되면 월마트가 섬유 할당량을 갖고 북한에 들어오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북한 관리들이 이 사안에 대해 무척 진지하게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또 이번에 경제제재가 풀리면 미국기업들이 북한에 늘린 자원개발을 위한 투자를 해주기를 원했다”며 “북한 관리들은 특히 마그네사이트에 대해 언급했다”고 소개

● 美하원, 北비핵화 위한 행정부 예산지원 허용(5/16)

- 미 하원은 15일 북한 비핵화를 위한 일련의 과정에 행정부의 예산지원을 허용하고, 한국의 미국산 군사장비구매(FMS) 지위를 한단계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가결하고, 미 하원은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8년 안보지원 및 무기수출통제개혁법안’을 통과시켰음.
- 법안은 핵실험을 실시한 국가에 대해 재정지원을 금지토록 한 이른바 ‘글렌수정법’과 관련, 북한의 비핵화 지원을 위해 북한을 적용대상에서 면제해 주는 규정을 포함시킴으로써 비핵화 관련예산이 앞으로 에너지부로부터 지원될 수 있음.
- 법안은 그러나 북한이 2005년 9월19일 북핵 6자회담 공동선언 합의 이후 핵을 보유하지 않은 국가에 핵폭발장치를 이전했거나 북한이 첫 핵실험을 실시한 2006년 10월10일 이후 추가로 핵폭발실험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글렌수정법’에서 북한을 면제하는 조치를 중단토록 조건을 달았음. 또 법 시행후 15일 이내에 미 국무장관으로 하여금 북한 핵프로그램과 관련한 검증수단을 관련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美하원, 북한인권법 2012년까지 연장법안 처리(5/16)

- 미 하원은 1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애초 오는 9월 말로 시효가 만료되는 ‘북한인권법’을 오는 2012년까지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2008 북한인권 재승인 법안’(North Korea Human Rights Reauthorization Act of 2008)을 가결
- 법안은 더 많은 탈북자의 미국내 정착을 돕기 위해 해외에서 미국 직원에게 미국 망명희망 의사를 표시한 북한 주민에 대해서는 미국내 정착문제가 결론이 날 수 있도록 협력토록 추가로 규정. 미국의 보호를 원하는 탈북자를 위해 아시아·태평양지역 정부의 협력과 허가를 얻도록 미국정부가 노력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하고, 현재 임시적인 북한인권특사를 상시직으로 전환토록 했음.

● “한국정부, 대북식량지원 진퇴양난”<WT>(5/15)

- 한국 정부가 심각한 식량난 조짐을 보이고 있는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문제를 놓고 진퇴양난에 빠졌다고 워싱턴타임스(WT)가 15일 서울발로 보도



- 이명박 정부는 지난 2월 출범하면서 북한이 공식적으로 식량지원을 요청하거나 남북지문제 등 상응하는 인도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대북식량지원을 끊겠다고 선언했지만 북한이 즉각적인 외부지원이 없으면 대규모 기근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면서 굶주리고 있는 북한 동포를 도와야 한다는 압력에 직면하고 있다고 타임스는 지적

● “北, 테러지원국 해제 뒤 납치문제 조치할 듯” <美전문가> (5/15)

- 새모어 부회장은 15일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과 인터뷰에서 “북한이 조만간 핵신고서를 제출한 뒤 부시 행정부가 의회에 대북 테러지원국 해제 방침을 통고한 직후 북한은 일본인 납치 문제에 관해 모종의 공식 발표나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미·일 양국 정부가 일본인 납치 문제에 관해 북한이 어느 정도의 문구나 성의 표시를 하는 것이 적합한지 논의를 진행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하고 그러나 “북한이 피랍 일본인 생존자의 확인과 같은 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 “북한문제, 차기 美행정부 당면위기중 하나” <CRS> (5/15)

- 미 의회 산하 연구기관인 의회조사국(CRS)는 최근 발간한 ‘2008-2009 대통령직 이양:국가안보관련 고려사항과 선택방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차기 미 행정부가 봉착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국가안보 관련 문제를 ▲현재 진행중인 미국의 군사활동 ▲우려의 대상인 국가와 지역에서 제기된 위기 ▲현행 이슈와 관련된 위기 등 세 가지로 구분했음.
- 보고서는 차기 행정부에 위기를 제공할 수 있는 국가와 지역으로 북한을 비롯해 이란, 러시아, 중국, 세르비아공화국, 베네수엘라, 쿠바, 중동 등을 꼽았음.

● “美, 北 플루토늄 보유량 추산 늘려” <WP> (5/14)

- 미국 정보당국의 정보분석 전문가들이 북한의 플루토늄 보유량 규모를 새롭게 추산한 결과, 기존에 판단했던 것보다 더 늘어났다고 워싱턴 포스트(WP)가 14일 보도
- 포스트는 미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새롭게 추산된 플루토늄 규모는 35kg부터 40kg, 50kg, 60kg까지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이는 북한이 지난 주 넘겨준 플루토늄 제조관련 기록들과 비교 분석될 것이라고 전했다.

● 美하원, 북한인권법·무기수출통제법 처리 <RFA> (5/14)

- 북한인권법 연장법안은 미국의 방송위원회에 대북 방송 시간 확대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토록 의무화했으며, 북한내 인권 증진을 위한 예산 지원을 매년 200만달러에서 400만달러로 증액했고 임시직이었던 북한인권특사를 정규직으로 임명토록 했음.
- 무기수출통제법 개정안은 핵실험 실시 국가에 대한 재정지원을 금지



한 이른바 ‘글렌수정법’을 완화하면서도 테러지원국의 족쇄는 채워두는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담았음. 이 법안은 앞으로 상원에서 처리된 뒤 대통령이 서명하면 발효

● “北·美 이달말 평양서 식량지원 실무회의” <RFA>(5/14)

- 미국이 북한에 지원하는 식량 50만t은 쌀, 밀, 야채, 옥수수, 콩 등으로 구성됐으며,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37만5천t, NGO를 통해 12만5천t을 지원할 것이라고 대북지원에 참여하게 될 NGO 관계자가 설명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전했다.
- 평양에서 열리는 북·미간 실무회의엔 WFP 관계자도 참석하며, 식량분배 감시체제, WFP와 NGO들에 의한 식량부족 현황에 대한 평가 작업 등의 방안이 집중 논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美, 조만간 대북 식량지원회의 열어 대책 논의”(5/14)

- 데이너 페리노 백악관 대변인은 미국 정부가 50만t의 대북 식량지원을 계획하고 있는냐는 질문에 대해 “북한이 식량부족 사태에 직면해 있다고 말해왔기 때문에 우리는 지원방안을 논의해 왔고, 그 방법으로는 비정부기구(NGO)를 통하거나 세계식량기구(WFP)를 통하는 게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주민들이 식량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며, 식량지원 계획이 확정되면 국무부를 통해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美 대북 의료지원도 본격화(5/13)

- 미국 국무부 산하 국제개발처(USAID)와 미국에 본부를 둔 비정부기구 4곳이 북한의 낙후된 의료시설에 발전기를 6월중 제공할 계획으로 있는 등 미 정부의 대북 의료지원 기금 400만달러가 지난달부터 집행되기 시작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보도
- 북한의 의료시설에 대한 전력공급용 발전기 지원 사업은 오는 7월 마무리되고 하반기에는 의료기기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VOA는 설명했다.

다. 중·북 관계

● 中 쿤밍서 탈북여성 5명 체포돼(5/16)

- 중국을 거쳐 라오스로 들어가려던 탈북 여성 5명이 윈난성 쿤밍(昆明)에서 중국 공안에 붙잡혔다고 탈북자단체 관계자가 16일 전했다. 이 관계자는 윤모(여)씨와 4살 난 딸 등 두사람을 포함해 탈북 여성 5명이 지난달 17일 지린성 옌지(延吉)시를 출발해 21일 쿤밍에 도착, 같은 날 라오스 국경을 넘기 전 타고 있던 버스에서 중국 공안에 체포돼 현재 쿤밍 감옥에 있다고 말했다. 탈북 여성들과 동행한 조선족 브로커와 이들을 도운 한족도 함께 붙잡혀 있으나, 현재 이들과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고 밝혔음.

● **주북 中대사, 성화봉송 협조 감사연회(5/15)**

- 류샤오밍(劉曉明) 북한주재 중국대사가 14일 대사관에서 베이징 올림픽 성화봉송행사에 협조해준 북한 당국에 감사연회를 개최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15일 전했다.
- 류 대사는 연회에서 “평양에서 진행된 제29차 올림픽경기대회 봉화(성화) 이어달리기는 가장 훌륭한 행사였다”며 “봉화이어달리기를 성과적으로 보장해 준 조선 당과 정부에 충심으로 되는 사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 박학선 위원장은 “이번 행사는 조(북)·중 두 나라 인민들 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체육분야에서 협조를 높은 단계로 발전시켜 나가는데서 의의있는 계기로 됐다”며 “봉화 이어달리기가 훌륭하게 진행됨으로써 조·중 친선의 공고성이 널리 시위되었고 우리는 앞으로도 두 나라 사이의 친선관계발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중국, 신의주 건너편에 공군력 증강 움직임(5/13)**

- 중국 인민해방군이 최근 압록강을 경계로 북한 신의주와 마주보고 있는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의 한 공군기지를 대폭 확장해 제3세대 전투기인 수호이-27기를 배치하기 시작한 것으로 관측돼 주목되고 있음.
- 중국 관영 CCTV-7은 지난 6일 저녁에 방영된 ‘군사보도’를 통해, 인민해방군 공군의 ‘모(某)’ 전투기사단 비행장이 서로 다른 종류의 비행기들을 성공적으로 이착륙시킬 수 있게 됨으로써 ‘다기종(多機種) 종합지원능력’을 갖추었다고 전했다.

라. 일·북 관계

● **WP “日, 북미 대화 진전에 외톨이 신세”(5/18)**

- 일본은 최근 북한 핵프로그램 신고문제를 둘러싸고 급물살을 타고 있는 북미 대화 속에서 ‘외톨이’ 신세를 느끼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도쿄발로 17일 보도. 일본 정부는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문제와 북한 중거리 미사일 폐기 문제 등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된 사안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과 미국이 핵신고 합의에 이르고, 이에 대한 대가로 북한이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는 것.
- 후쿠다 야스오 총리는 최근 워싱턴 포스트와 가진 인터뷰에서 “핵문제에만 국한된 합의는 일본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며, 그렇다면 일본은 북한과의 관계개선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일본 현안이 북미대화에서 소외되고 있는데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함.



그는 “일본에 위협을 주고 있는 핵문제, 미사일 문제와 더불어 납치 문제는 3중세트”라며 “이 세 가지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미흡하다면 문제를 해결하는게 아니다”라고 강조함. 또 “이 문제를 푸는 것은 북한의 재정난과 관계가 있다. 이들 문제가 해결된다면 일본은 식민지 보상으로 100만 달러의 경제협력자금을 현찰로 북한에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

● “北, 생물·화학무기 자재조달 계속”(5/17)

- 북한이 지난해 가을 이후에도 독일 등 유럽에서 생물·화학무기 개발에 이용 가능한 자재를 조달하려는 시도를 계속했다고 마이니치(毎日)신문이 17일 독일 정보기관인 헌법수호청의 프롬 장관의 발언을 인용해 보도
- 독일 헌법수호청의 프롬 장관은 마이니치와의 인터뷰에서 “대량 파괴무기 개발에도 전용될 수 있는 측량기, 분석기 구입 시도는 이전부터 있었다. 그런데 그런 움직임이 지난해 10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며 독일은 물론 다른 유럽 각 지에서도 북한측의 조달 활동이 확인됐다고 밝혔음.

마. 기타

● 싱가포르 외무 “北, TAC 가입 적극 고려”<싱가포르紙>(5/16)

-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북한을 방문한 조지 여 싱가포르 외무장관이 “북한이 동남아우호협력조약(TAC) 가입을 적극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싱가포르에서 발행되는 중문 일간지 연합조보(聯合早報)가 15일 보도
- 여 장관은 지난 14일 중국 단둥(丹東)에 도착해 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아세안 외무장관회담 순번제 의장 자격으로 북한측에 동남아우호협력조약 가입 요청을 전달했으며 북한측 관원으로부터 ‘적극 고려하겠다’는 답변을 얻었다”고 전했다.

● “北 협조로 인구조사 ‘본격단계’”<UNFPA>(5/13)

- 오는 10월로 예정된 북한의 인구조사 준비가 북측의 “협조적인 태도”로 설문지 작성 작업이 끝나는 등 “본격단계에 들어갔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유엔인구활동기금(UNFPA) 관계자 말을 인용해 보도
- 최근 평양 방문 후 베이징으로 돌아간 버나드 코클린 UNFPA 중국 사무소장은 “북한이 UNFPA와 체결한 양해각서 내용을 충실히 실행에 옮기고 있다”며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지만 다행히 북한 당국이 열린 자세로 잘하려는 의욕이 넘쳐 인구조사의 질이 아주 좋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고 이 방송은 전했다.



## 2. 주변국 관련

### 가. 한·미 관계

#### ● 정부, '美식량지원' 환영 입장 발표(5/18)

- 정부는 18일 미국 정부가 북한에 50만t의 식량을 지원하기로 한 것과 관련, 외교통상부 대변인 명의로 '인도주의적 지원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발표. 정부는 이날 '미국의 대북 식량지원 계획 발표에 대한 우리 입장'이라는 자료를 통해 "미국이 50만t의 인도적 식량지원 계획을 16일 발표했다"면서 "이번에 미국 정부가 인도주의에 입각해 식량지원 계획을 발표하게 된 것을 환영하며 이러한 지원이 북한의 식량난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그간 대북 식량지원과 관련해 미국과 긴밀히 협의해왔다"고 덧붙였다.

### 나. 한·중 관계

#### ● <중국 강진> 한국정부 구호물품 첫 도착(5/18)

- 우리 정부가 중국에 지원하는 첫 지진 피해 구호물품이 18일 중국 청두(成都)에 도착. 이재민용 텐트 1천450동, 모포 5천500장 등 모두 50만달러 상당의 정부 구호물품을 실은 인천발 아시아나 화물기가 이날 오후 5시께 청두 국제공항에 도착해 하역을 시작했다. 정부는 한국 국제협력단(KOICA)을 통해 지진 피해를 입은 중국 정부에 모두 100만달러를 지원기로 약정하고 이날 1차 지원분을 청두에 보냈다.

#### ● 한국, 中대지진 인명구조 본격착수(5/17)

- 한국 정부가 파견한 119 소방대원 44명은 지진 발생 72시간인 17일 지진 최대 피해지역 중 하나인 스광현 잉화(鎿華)진 화학공장에서 인명 구조작업에 착수. 이 화학공장에는 수백명이 매몰돼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휘발성이 강한 화공약품을 생산하던 곳이어서 구조작업이 위험할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음.
- 한국 구조대는 지난 16일 현장에 도착한 후 텐트를 치고 이날부터 구조작업에 들어갔고, 일본과 싱가포르 구조대도 지진 현장에서 구조에 나섰다.

#### ● '119 국제구조대' 中지진현장에 파견(5/16)

- 소방방재청은 지난 12일 발생한 중국 쓰촨성 지진 피해 현장의 매몰자 수색·구조 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119 국제구조대'를 중국 현지에 파견한다고 16일 밝혔다. '119 국제구조대'는 김영석 대장을 비롯해 구조 경력 5년 이상의 고참 구조대원 41명으로 구성되며, 구조견 2마리와 음파와 전파를 이용해 생존자를 찾아내는 매몰자 탐지기 등 첨단장비 108종 337점도 동원



- **정부, 中 지진에 100만달러 규모 긴급지원(5/14)**
  - 정부는 14일 중국 쓰촨성에서 발생한 대규모 지진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중국 정부에 100만 달러 규모의 긴급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외교통상부 문태영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중국 측이 필요로 하는 담요와 텐트 등 구호품목과 긴급구호금을 통해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 **李대통령, 中주석에 지진 위로전문 발송(5/13)**
  -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중국 쓰촨(西川)성에서 발생한 대지진과 관련,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주석에게 위로 전문을 발송하고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지시
  -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국무회의 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필요한 일을 적극 찾아서 도와주도록 지시했다”면서 “후진타오 주석에게 위로 전문도 발송했다”고 밝혔다.
- **李대통령 27~30일 중국 국민방문(5/13)**
  - 이명박 대통령이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3박4일간 중국 베이징(北京)과 칭다오(靑島)를 방문,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과 한·중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현안을 논의한다고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이 13일 발표
  - 이동관 대변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중국 방문을 통해 양국간 전면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한 단계 격상시켜 미래지향적인 한·중관계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공고히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중국 방문에서는 ▲양국 정상간 셔틀외교 활성화 ▲경제·통상분야에서의 실질적 협력 확대 ▲북핵사태 해결 및 대북 정책공조 강화 ▲동북아 지역 및 국제무대 협력 강화 방안 등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 다. 한·일 관계

- **정치권 ‘日 독도 영유권 교육 강화’ 규탄(5/18)**
  - 한나라당은 한·일간의 신뢰구축을 위해 일본 정부의 올바른 역사인식을 촉구했고, 통합민주당 등 야권은 영토주권에 대한 도발이라며 일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함. 교사들의 학생교육 지침서를 위한 해설서 등에 일방적인 주장을 역사인 것처럼 실어선 절대 안 된다는 반대 입장 밝혔다.
- **日, “독도는 일본 땅” 주장·교육 강화(5/18)**
  - 일본 외무성이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문서를 홈페이지에 게재, 홍보



에 힘쓰고 있는 가운데 문부과학성이 독도의 일본 측 이름인 ‘다케시마’(竹島)에 대한 영유권 교육을 강화할 방침. 일본 문부과학성은 중학교 사회교과의 신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한국과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독도를 “우리나라 고유 영토”로 명기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讀賣)신문 보도

● **日, 한국·대만인 BC급 전범 보상법안 추진(5/18)**

- 일제 패망 후 전범 재판에서 ‘일본인’으로 분류돼 처벌을 받았음에도 일본 정부로부터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한반도와 대만 출신 BC급 전범에 대한 보상 방안이 추진되고 있음.
- 일본 민주당의 이즈미 겐타(泉健太) 중의원 의원 등은 일본 국적이 없다는 이유로 보상에서 제외된 이들 BC급 전범에 대해 특별교부금을 지급하기 위한 의원입법안을 처음으로 이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아사히(朝日)신문이 18일 보도. 법안은 한반도와 대만 출신의 BC급 전범과 유족에 대해 인도적 정신에 입각해 1인당 300만엔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 **日, 한국 어선 EEZ침범 오인 억류 사과(5/17)**

- 일본 해상보안청은 16일 한국 어선이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EEZ) 침범한 것으로 오인, 억류한 데 대해 사과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
- 일본 해상보안청은 이날 나가사키현 쓰시마섬 인근 수역에서 한국 어선이 EEZ를 침범한 것으로 오인해 억류했으나 GPS장비와 전자해도 등을 분석한 결과, 수역을 침범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억류를 풀고 해상보안청 관리가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 사과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일본 경비정은 자국 EEZ 안쪽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레이더에 잡힌 다른 선박 2척을 한국 선박으로 오인한 것으로 밝혀졌음.

● **한·일 경비정 해상대치 6시간여만에 종료(5/16)**

- 한국 어선의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EEZ) 침범 여부를 놓고 16일 남해상에서 벌어진 한·일 양국 경비정간 대치상태가 6시간30분만인 오후 8시20분께 종료됐음. 부산해경 소속 경비정 6척과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순시선 4척은 이날 오후 1시45분께부터 경남 홍도 남쪽 17마일 해상에서 부산선적 쌍끌이저인망 어선 97세진호(134t)와 98세진호(134t)의 일본 EEZ 침범여부를 둘러싸고 대치했음.

● **日, 한일 국교정상화 협상 문서 공개(5/13)**

- 일본 외무성은 지난 1951년부터 1965년까지의 한일 국교정상화 협상과 관련한 5만쪽 분량의 외교문서를 공개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13일 보도
- 문서 공개는 ‘일한 회담 문서의 전면 공개를 요구하는 모임’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지난 달 28일에 이어 이달 2일, 9일 단계적으로 공개





됐으나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에 대한 영향 등을 이유로 내용을 알 수 없도록 먹칠을 해놓은 문서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 라. 미·중 관계

##### ● 美 재무부, 中 ‘환율조작국’ 지정 또 거부(5/16)

- 재무부가 15일 공개한 반기 환율 보고서는 중국이 위안 절상을 가속화시켜온 것을 환영한다면서 그러나 “여전히 충분치 않다”고 지적했음. 보고서는 그러나 중국을 환율 조작국에 포함시키지는 않았음. 보고서는 “중국이 지금처럼 빠른 속도로 계속 환율을 현실화시켜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 중국 강진, 美日 등 국제사회 지원 잇따라(5/13)

-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12일 중국 쓰촨성(四川省)에서 지진으로 최소 6천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 중국 정부에 애도를 표시하고 미국은 도움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음.
- 일본 외무성은 이날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총리 명의의 성명을 통해 지진 피해를 입은 중국의 후진타오(胡錦濤) 국가 주석과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에게 조의를 표하고 원조 제공의 뜻을 전했다. 일본의 지지통신은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 식수와 음식, 담요와 함께 의료진을 포함한 구호팀 제공이 이뤄질 것이라며 전체 원조 규모는 수천만엔(수억원) 규모가 될 것이라고 보도.
- 유럽연합(EU)도 중국측에 도움을 제공하겠다는 뜻을 밝혔음.

#### 마. 중·러 관계

##### ● “러·中, 브라질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지지표명”(5/17)

- 러시아와 중국이 브라질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한 지지 입장을 나타냈다고 셸소 아모링 브라질 외무장관이 16일 밝혔음. 러시아 예카테린부르크에서 열린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 등 브릭스(BRICS) 4개국 외무장관 회담에 참석한 아모링 장관은 이날 “러시아와 중국이 브라질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말했음.
- 이날 외무장관 회담에서 브릭스 4개국이 G8(선진7개국+러시아)에 합류할 필요가 있다는데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했음. 아모링 장관은 “전 세계 인구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세계경제의 성장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브릭스 4개국이 모두 G8에 포함돼야 한다는 데 견해를 같이 했다”고 말했음.

##### ● “브릭스 4개국 새로운 동맹관계 구축 시도”<브라질 언론>(5/17)

-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 등 브릭스(BRICS) 4개국이 외교·경제 분야의 긴밀한 협력을 전제로 한 새로운 동맹관계 구축을 시도하



고 있다고 브라질 일간 폴라 데 상파울루가 16일 보도

- 신문은 브릭스 4개국 외무장관들이 이날 러시아의 예카테린부르크에서 회담을 가졌다는 소식과 함께 “이들 거대 신흥개도국들이 정치적 동맹관계 구축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회담에서는 군사무기 확산 억제, 국제테러 공동 대응, 에너지, 기후변화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브라질 정부의 요청에 따라 바이오 에너지의 생산 확대와 식량가격 상승의 연관성에 관해서도 협의의 뜻을 가졌다.

#### ● 러·中·인 외무, 코소보 협상 재개 촉구(5/15)

- AFP 통신에 따르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이날 브릭스(BRICs) 회담을 위해 러시아 예카테린부르크에 모인 중국과 인도 외무장관과 함께 국영 TV에 출연, “3개국은 세르비아 정부와 코소보 지도부가 국제법의 틀 내에서 코소보와 관련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담을 다시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 라브로프 장관은 이어 코소보 분쟁은 반드시 국제법에 기초해 문제 해결을 도모해야 한다면서 코소보 독립은 인정할 수 없으며, 유엔을 통해 재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뜻을 재차 강조

#### 바. 기타

#### ● 日, 아프리카 지원·투자 강화...천연자원 겨냥(5/18)

- 일본 정부는 향후 5년간 아프리카에 대한 자국 민간기업들의 직접 투자를 두 배로 늘리도록 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지(日本經濟)신문이 18일 보도
- 천연자원이 풍부한 아프리카는 일본 민간기업들이 사업을 펼칠 수 있는 잠재력이 뛰어난 지역으로 일본 정부는 공적개발원조(ODA) 등을 통해 자국 기업의 아프리카 진출을 측면 지원할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 ● 한-뉴질랜드 FTA 추진...“하반기에 예비협약”(5/16)

- 이명박 대통령과 방한중인 헬렌 클라크 뉴질랜드 총리는 16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가능성을 논의해나가기로 합의. 이 대통령과 클라크 총리는 양국간 FTA를 체결할 경우 경제성장률 증가, 양국간 교역 증가 등 긍정적인 경제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양국의 민간 공동연구 결과를 환영한 뒤 하반기 중 정부간 예비협의를 개최해 양국간 FTA 범위와 기대수준 등을 공식 협의하기로 했다.
- 양 정상은 또 공동의 이익을 기반으로 제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21세기 동반자 관계’를 더욱 심화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하고, 정치 분야에서 외교장관 연례 교환방문과 각료급 인사 교류, 정치·군사협



의회 개최, 의회 친선교류 프로그램 확대 등 정부 및 의회간 고위급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기로 의견을 모았음.

- 경제분야에선 FTA 추진과 함께 나노기술, 환경기술, 생명공학 등 과학기술 부문의 새로운 협력사업을 확대 발전시켜 나가고, 농업 분야간 공동연구 및 정보교환, 투자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음.
- 북핵문제와 관련, 양 정상은 북한이 6자회담에서 도출된 제반 합의에 따라 현존하는 모든 핵시설을 불능화하고 모든 핵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를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제공키로 한 약속을 조속히 이행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대를 이뤘음.

#### ● 박 “공동선언통해 한·호 협력방안 밝히자”(5/16)

- 지난 11일부터 호주를 방문중인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15일(한국 시간) 케빈 러드 호주 총리를 면담하고 양국간 관계증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박 전 대표측이 16일 밝혔음.
- 박 전 대표측에 따르면 박 전 대표는 러드 총리에게 “양국 관계의 격상을 위해 경제·통상 분야 뿐 아니라 외교·안보 등에서도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공동선언을 통해 양국의 협력방안을 밝히면 좋을 것”이라는 뜻을 전달했음.
- 이에 대해 러드 총리는 “정부 수반의 교류 정례화 등의 협력 방안을 (공동선언에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오는 7월 한국 방문시 한국에 제시할 수 있는 1~2가지 안을 가지고 가겠다”고 말했음.

#### ● 태, 탈북자 지원 한인목사 추방(5/16)

- 태국 이민국은 15일 탈북자의 밀입국을 도운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오세우 목사(59)를 추방. 태국 주재 한국대사관은 “오 목사가 15일까지 출국하라는 태국 이민국의 명령을 받고 이날 밤 출국했다”며 “같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오 목사의 부인 조복녀(60) 씨도 복역 뒤 추방절차를 밟게 된다”고 말했음.
- 태국 치앙라이 지방법원은 지난 6일 오 목사에게 벌금 1만바트(약 30만원), 부인 조씨에게는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음. 오 목사 부부는 2002년부터 태국에서 선교활동을 해왔으며 지난 3월27일 북부지방인 치앙센에서 탈북자들의 잠자리를 마련해주려다 경찰에 체포됐음.

#### ● 카리모프 “한국에 우라늄 공급확대”(5/13)

- 이슬람 카리모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은 13일 한승수 국무총리를 만나 우라늄 2천600t 장기공급 계약을 체결한 것과 관련, 향후에도 우라늄 공급을 전향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 카리모프 대통령은 또 알마릭 광산의 제련기술 현대화 사업과 관련, “한국과 협력하겠다”고 강조한 뒤 “알마릭 미개척 광구에 한국이 지



질학자 등 전문가 조사단을 파견하면 공동개발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고 밝혔다.

[참고자료] 한·뉴질랜드 정상회담 주요 합의사항(5/16)

분 야	주요 내용
고위급 인사교류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명박 대통령 뉴질랜드 답방 추진</li> <li>- 외교장관 연례 교환방문 등 정례 협의체 긍정평가</li> <li>- 의회간 교류 지속 확대</li> </ul>
경제·통상 협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역·투자 확대 및 협력 강화</li> <li>- 한·뉴질랜드 FTA 정부간 예비협의 개최</li> <li>- 에너지·자원 분야 협력 증진</li> <li>- 6월 ‘인터넷경제의 미래에 관한 OECD 장관회의’ 및 ‘제4차 한·호주·뉴질랜드 브로드밴드 서밋’ 성공적 개최 협력</li> <li>- 나노·환경·생명공학기술 분야 공동연구 증진·협력</li> <li>- 농업분야 공동연구 및 투자·교역 확대 긍정 평가</li> </ul>
문화·인적 교류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뉴질랜드 영화공동제작협정 조속 체결 추진</li> <li>- 한·뉴질랜드 취업관광사증제도 참가자 상한선 확대위한 실무협의 개시</li> <li>- 학생교환 및 교사연수 프로그램 등 교육사업 증진</li> </ul>
북한문제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자회담 제반 합의사항 조속 이행 필요성 공감</li> <li>- ‘비핵·개방 3000’ 구상 등 평화·안보 노력 지지</li> </ul>
지역·국제무대 협력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아세안지역포럼(ARF),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 지역협의체내 협력 중요성 공감</li> <li>- 지역안보 및 경제협력 증진, 에너지, 환경, 인간 안보 등 상호협력</li> <li>- 유엔, 세계무역기구(WTO) 등 다자외교 무대 협력지속</li> </ul>

\* 출처(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08/05/16/0503000000AKR20080516052600001.HTML>